전남 '블루 이코노미' 국비 확보 청신호

내년 171건 1조5,789억 반영
김 지사 필두로 중앙부처 설득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등 탄력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새천년 미래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주요 사업의 2022년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이 올해 121건 1조 2,479억 원보다 50건 3,310억 원(26.5%) 늘어난 171건 1조 5,78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디지털 시대 미래신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블루 이코노미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 일치한 데다, 김영록 지사를 필두로 도청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했기에 가능했다.

민선7기 핵심시책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의 청정자원인 섬과 바다, 황금들녘, 하늘, 바람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성장 동력이다. 에너지·관광·바이오·미래운송기기·농수산·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블루 에너지 분야에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23억 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 43건 1,381억 원이 반영됐다.

블루 투어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429억 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77호선 연결도로 149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90억 원 등 44건 9,095억 원이 포함돼 전남관광 산업의 인프라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블루 바이오는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103억 원,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96억 원 등 19건 715억 원이 편성됐다.

블루 트랜스포트는 전남을 미래 운송수단의 메카로 도약시킬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49억 원,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개발 32억 원 등 27건 1,180억 원이 반영됐다.

블루 농수산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75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56억 원 등 37건 2,829억 원으로, 전남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블루 시티는 신개념 스마트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589억 원이 편성됐다.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100대 과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비전 수립 4년 차인 2022년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을 도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정부예산안 대폭 반영은 저탄소 경제 전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전남이 선도할 기회"라며 "확보한 정부 예산은 지키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남구, 월중업무 보고회 광주시 남구는 7일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김병내 남구청장 주재로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월중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남구 제공

전남도, 이달 말 접종률 80% 전망

추석 전까지 17만명 대기

전남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9월 말까지 접종률 80%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3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18~49세와 발달장애인 등 4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접종을 하고 있다.

사전예약자는 28만 4,000 명(예약률 69.3%)이며, 지금까지 5만 명이 1차 접종을 했고 9월 말까지 23만 명이 접종 대기 중이다.

특히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접종 대기자는 17만 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나 된다. 추석 고향 방문을 앞두고 접종을 서두르겠다는 수요로 보인다.

하루 평균 접종 예정 건수는 1만 2,000건 내외로 도내 접종 역량을 감안할 때 9월 말까지 접종률 80%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도는 접종률 80% 달성 시 집단면역이 70% 이상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18~49세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상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예약 등 일정에 맞춰 접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8~49세·발달장애인 사전예약은 예방접종누리집(https://ncvr.kdca.go.kr)이나 시군 콜센터를 통해 18일까지 진행한다.

전남지역 백신 접종률은 67.8%로 도민 125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길용현 기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20원 결정

시, 올해보다 3.8% 인상

광주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20원으로 결정하고 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된 수준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 국민지원금 첫날 381억원 지급

15만3천명…전체 12.2%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광주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6일 15만3,000명에게 38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지급대상자 125만명의 12.2%이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월요일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결과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신청 이틀 뒤에 포인트가 충전됐지만 올해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광주상생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는 온·오프라인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 신청에 따른 혼잡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도,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특산물을 구입하도록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관련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품목과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 10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창에 학원114 을 쳐보세요

정가 브리핑

송갑석,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